'마약류 소지·투약·운반·판매' 외국인 선원 등 4명 검거

목포해경, 차량 도주 격투 끝 검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 발견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이를 운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과 판매책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선원인 A씨(20대)와 B씨(30대·여) 등 2명은 지난 16일 오전 목포시 산정로의 한 도로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목포해경 경찰관들과의 격투 끝에 붙잡혔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해경은 검거된 A씨 등 2명을 조사하던 중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도 안양 일대를 탐문 및 이동경로를 추적해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도주·은신 중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C씨와 D씨(20대·여)를 추가로 체포했다.

해경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마약류 매매, 소지, 운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 후 4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3명, 불구속 1명)했다. 이들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과 유학생, 결혼 이주 여성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충북 청주와 전남 고흥 등 A씨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행적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잠복·탐문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다량의 마약류 판매를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목포해경은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4월에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4명(구속 3명, 불구속 1명)을 검거한 바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폭설에 묻힌 돌하르방 주말 동안 쏟아진 폭설의 영향으로 26일 제주 한라산 1100고지에 서 있는 돌하르방이 눈 속에 묻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성탄절을 앞두고 나흘간 제주 한라산 사제비에는 92.4㎝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다.

광주 산단도로 '포트홀 보수 작업' 한창
폭설후 '도로위 지뢰' 포트홀 우후죽순

눈 녹아 도로 홈 파고들어 수축·팽창 반복, 곳곳에 포트홀

"눈 오고 나니 곳곳이 포트홀(도로면 패임) 지뢰네요."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진곡산단 도로 일대에선 도로면 패임 긴급 보수공사가 한창이었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내린 눈이 녹아 도로 홈에 스며들어 수축·팽창을 반복, 곳곳에 포트홀을 만들어 낸 탓이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최고 적설량 40㎝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포트홀은 도로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특히 산단을 자주 오가는 대형 화물차량 바퀴가 도로 노면과 자주 마찰하면서 곳곳에 크고작은 포트홀이 눈에 띄었다.

한 도로에선 지름 10~30㎝가량 되는 구멍 10여 개가 1~2m 간격을 두고 잇따라 있었다. 점검 차, 1차선 도로를 서행하던 작업 차량은 '포트홀 발생' 을 알리는 신호로 등을 켰다.

뒤따르던 대형 다목적 차량도 멈춰선 뒤 보수 공사 구간임을 알리는 경보음을 크게 울렸다. '삐용삐용' 경보음과 함께 작업 차량에선 형광색 옷을 입은 작업자 4명이 삽과 상온 아스콘(응급 도로 보수제) 포대를 들고 차량에서 내렸다.

한 작업자가 포트홀에 끼인 쓰레기·먼지 등 이물질을 걷어내는 사이, 형광봉을 든 신호수는 시속 80㎞로 달리는 화물차들이 작업 구간에서 서행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작업자들은 움푹 패인 구멍에 자루째 아스콘을 쏟아부었다. 삽이나 발바닥으로 구멍 구석구석 아스콘을 다져 넣은 뒤 표면 평탄화로 보수 작업을 마쳤다.

시는 이날부터 민간 업체와 9개 팀(21명 규모)을 꾸려 폭 20m 이상 도로 407곳(길이 599㎞)에서 포트홀 점검·보수 공사를 벌인다. 겨울철 해빙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이어진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눈이 내린 며칠 새 포트홀이 많이 생겨나 주행 중 2차 사고나 타이어 파손이 우려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포트홀 보수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2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만 광주 시 전역에선 보수한 포트홀은 316곳이다. 하루 평균 79건을 보수한 셈이다. 지난해 1만 6166건의 포트홀이 발생, 하루 평균 44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폭설기간에 얼마나 많은 포트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에서는 이후 한 차례 더 기록적 폭설이 내려 포트홀 관련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트홀 보수공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형택 기자

광주 빛고을대로 7중 추돌, 1명 경상…눈길 미끄러진 듯

26일 오전 8시43분 광주 서구 동천동 빛고을대로(동림 나들목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7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해당 구간 일부가 통제돼 30분가량 출근길 차량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경찰은 덜 녹은 눈길을 달리던 차량들이 미끄러져 추돌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이슬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